

KITA 도쿄지부

3월
제4호

2021年3月22日

Vol. 53

주요 내용

○ 금주의 경제·통상정보

- 美日 2+2회담, 중국 해경법에 심각한 우려 표명
- 日반도체 대기업 화재로 자동차 추가 감산 불가피
- 세계 공통 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일본에서 실증 실험 시작
- 日정부,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근로 지침 개정 추진

○ 금주의 주요 경제지표

- 日, 2월 수출 3개월 만에 마이너스 기록
- 日, 2월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7개월 연속 하락

금주의 경제·통상정보

1 美日 2+2 회담, 중국 해경법에 심각한 우려 표명

- 美日 양국정부는 지난 16일 도쿄도내에서 외무·방위담당 각료회의(2+2)를 개최, 중국의 일본 오키나와현 주변에서 활동을 비판하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공동문서를 발표
 - 이번 2+2 협의는 미국의 신정권 발족 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과거 역사상 가장 빠른 것이라 평가

연월	일본 정권	미국 정권	주요 테마
2015년 4월	아베	오바마	미일 가이드라인 재개정
2017년 8월	아베	트럼프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2019년 4월	아베	트럼프	우주·사이버 방위
2021년 3월	스가	바이든	해경법 등 중국에 대한 대처

- 공동문서에는 최근 개정된 중국 해경법에 대한 우려, 대만 해협의 안정화 도모 등에서 미일 양국의 대중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측은 美日동맹의 억지력을 강화, 진전시키고,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추진한다고 언급

< 공동발표 포인트 >

- 중국 해경법에 심각한 우려
-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
- 尖閣諸島에 미일안보조약 5조를 적용. 일본의 시정을 훼손하는 행동에 반대
- 동맹 강화를 위한 「일본의 능력 향상」
- 연내에 2+2를 다시 개최

[상세전문\(kita.net으로 이동\)](http://kita.net)

2 日 반도체 대기업 화재로 자동차 추가 감산 불가피

- 일본 반도체 제조 세계3위인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가 지난 21일 화재발생으로 생산을 중단, 생산재개에 1개월이상 소요될 예정으로 자동차용 반도체의 공급부족 상황은 더욱 악화, 자동차 추가감산 리스크 고조
 - 반도체는 공정이 많아 제조에 2~3개월이 소요되어 공급 정상화까지는 3개월 넘게 소요된다는 계산
 - 미중 무역마찰과 최근 수요급증, 2월 중순의 미국 텍사스지역의 한파로 현지 공장 중지 등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더욱 악화 우려
- 피해가 난 제품은 직경 300mm의 웨이프 생산라인으로 주로 자동차의 주행을 제어하는 마이콘이라 불리는 반도체를 제조
 - 르네사스는 마이콘의 세계 점유율 약 20%로 세계 2번째이며 토요타 자동차와 닛산자동차 등에 공급
 - 토요타는 생산차종 변경이나 교체생산의 가능성 등도 검토하면서 화재로 인한 생산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정밀 분석

<마이콘의 세계 점유율>

업 체 명	점유율(%)	업 체 명	점유율(%)
NXP세미콘덕터즈(네덜란드)	17.1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	17.0
인피니온테크놀로지(독일)	14.6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스위스)	14.4
마이크로칩테크놀로지(미국)	12.7	기 타	24.2

(주) 2020년 매출기준. 자료는 영국 옴디아

- 영국조사회사 옴디아에 의하면 일본내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 세계적으로 피해 규모가 수만대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추정
 - 르네사스의 300mm의 생산라인은 일본 那珂공장밖에 없으며, 200mm의 생산라인에서 생산하려고 해도 이 라인도 화재로 정지된 旭化成 반도체 공장의 대체생산 등으로 풀가동중

- 한편 이번 화재가 발생한 르네사스의 공장은 원래 대만TSMC 등 외부로 위탁하고 있었던 반도체를 작년 가을 자사생산으로 돌린 라인으로, 위탁 생산에 따른 납기지연을 우려해서 자사생산으로 교체한 것이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

[상세전문\(kita.net으로 이동\)](#)

3 세계 공통 코로나 디지털 증명서, 일본에서 실증 실험 시작

□ 세계경제포럼(WEF)의 “커먼 패스”, 일본에서 실증 실험 시작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PCR 검사 결과나 백신의 접종 이력을 스마트폰 앱으로 표시하는 세계 공통의 디지털 증명서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 등이 개발하고 있는 “커먼 패스”라고 불리는 스마트폰 앱이 일본에서 실증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음
 - 공항 국제선 터미널에 설치된 PCR 검사장에서 나온 검사 결과의 데이터가 각각의 스마트폰으로 전송, 이 데이터를 커먼 패스 앱에 연계하면 QR 코드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 세계 공통의 디지털 증명서 역할을 함. 비행기에 탑승할 때 스마트폰을 리더기에 대면 방문할 국가의 입국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구조임
 - 앞으로 PCR 검사 결과와 함께 백신 접종 이력도 함께 표시할 계획이며 세계 각국의 항공사가 사용하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임. 또한 입국 수속을 위한 정부와의 연계도 진행되어야 할 것임

□ 국제항공운송협회의 “IATA 트래블 패스”, 항공사들 중심으로 실험 시작

- 스마트폰 앱을 사용한 디지털 인증서는 전 세계 290여개 항공사가 가입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개발을 진행 중. 전일본공수(ANA)이 다음 달 이후 실험에 참여할 계획이며, 일본항공(JAL)도 참가를 검토 중임
- IATA의 관계자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항공 업계가 코로나 위기에서 회복하는 것이고 트래블 패스가 세계 표준이 돼 항공사나 승객이 전 세계에서 똑같은 패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원이다”라며 “앱을 제공하는 곳이 여러 곳이더라도 세계 표준을 하나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앱 간의 호환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음

[상세전문\(kita.net으로 이동\)](http://kita.net)

4 日정부,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근로지침 개정 추진

- 일본 정부(후생노동성)는 최근 텔레워크(재택근무)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노무관리를 명확하고 도입기업 확대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지침) 개정 추진
 - 최근 코로나19 감염 지속으로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업종에 따라 도입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노무관리가 애매한 부분이 발생, 이런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
 - 업종별로 정보통신업이 65.6% 재택근무 도입 기업비율이 가장 높고, 그 외의 업종은 대체적으로 50%이하로 전기·가스·수도업이 35.2%, 금융·보험·부동산 29.0%, 제조업 전체로도 28.9%에 그침(내각부의 2020년 12월 조사)
- 이번에 도입될 새로운 지침에는 우선 노사 협의로 재택근무 시의 취업규칙을 정하도록 하고, 근무시간 파악 방법, 육아 등의 개별 사정에 따른 업무수행 방법, 정규 및 비정규직의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인사평가 방법에서의 차별 방지, 직원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등 확대실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안 등도 포함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노사에서 노무관리 규칙을 미리 결정
○ 업무 플로의 전자화를 추진
○ 텔레워크 통신비 등 비용부담도 고려
○ 심야·조조 포함 업무시작과 업무 종료 시간은 유연하게 설정
○ 장시간 노동대책으로 업무시스템 접근 제한 등도 검토
○ 건강상담 체제와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조치 필요

[상세전문\(kita.net으로 이동\)](http://kita.net)

금주의 주요 경제지표

1 日, 2월 수출, 3개월 만에 마이너스 기록

□ 2월 수출, 4.5% 감소한 6조 380억 엔으로 3개월 만에 마이너스 기록

- 재무성이 17일 발표한 2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4.5% 감소한 6조 380억 엔이었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에 따른 침체에서 회복은 이어졌으나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등의 영향으로 미국 시장 자동차 수출이 부진해 3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함
- 수출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가 12.9% 감소, 광물성 연료가 ▲40.7%, 선박이 ▲27.5%로 두 자리 감소세를 나타냄
- 교역 국가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14.0% 감소함. 미국으로의 수출은 자동차 외에도 항공기 부품 등의 항공기 관련 수출액이 크게 떨어졌음.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0.8% 감소로 선박이나 광물성 연료의 침체가 두드러졌음.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3.3% 떨어졌으며 자동차나 원동기 등의 품목이 부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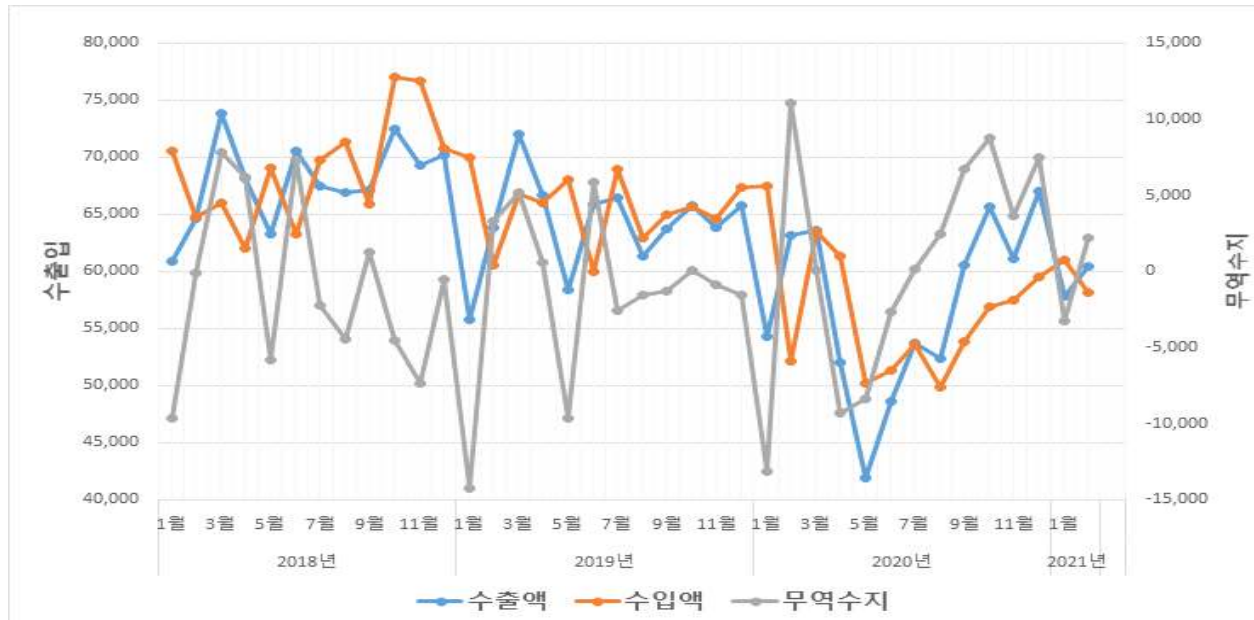
□ 2월 수입은 5조 8206억 엔으로 1년 10개월 만에 플러스를 기록함

- 2월 수입액은 11.8% 증가한 5조 8206억 엔을 기록, 1년 10개월 만에 플러스가 되었음. 전년에 비해 중국의 생산 활동이 회복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 동월의 2.1배로 크게 늘었음. 휴대 전화 등의 통신기기, 의류 등의 수입이 특히 증가함
- 수입 품목별로 보면 통신기기가 63.9%, 의류 등의 수입이 54.1%로 두 자리 수로 증가하였으며 반면 원조류의 수입은 30.7% 감소를 보였음

□ 2월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80.5% 감소한 2,174억 엔으로 흑자를 기록. 흑자는 2개월 만임

<일본의 최근 수출입 동향>

(억 엔)



주) 2021년 2월은 속보치

자료원 : 재무성 무역통계(통관기준)를 이용

<월별 일본 수출입 동향>

(억 엔, 증감률은 전년 동월 대비 %)

	'2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 1월	2월
수출액	54,305	63,213	63,579	52,060	41,848	48,624	53,689	52,327	60,551	65,658	61,136	67,062	57,796	60,380
(증감률)	-2.6	-1.0	-11.7	-21.9	-28.3	-26.2	-19.2	-14.8	-4.9	-0.2	-4.2	2.0	6.4	-4.5
수입액	67,431	52,125	63,529	61,379	50,182	51,317	53,572	49,844	53,801	56,966	57,511	59,566	61,049	58,206
(증감률)	-3.6	-13.9	-5.0	-7.1	-26.2	-14.4	-22.3	-20.8	-17.2	-13.3	-11.1	-11.6	-9.5	11.8
무역수지	-13,132	11,088	50	-9,319	-8,334	-2,689	117	2,483	6,750	8,692	3,625	7,496	-3,239	2,174

주) 2021년 2월은 속보치

자료원 : 재무성 무역통계(통관기준)를 이용

2 日, 2월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7개월 연속하락

□ 2월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 0.4%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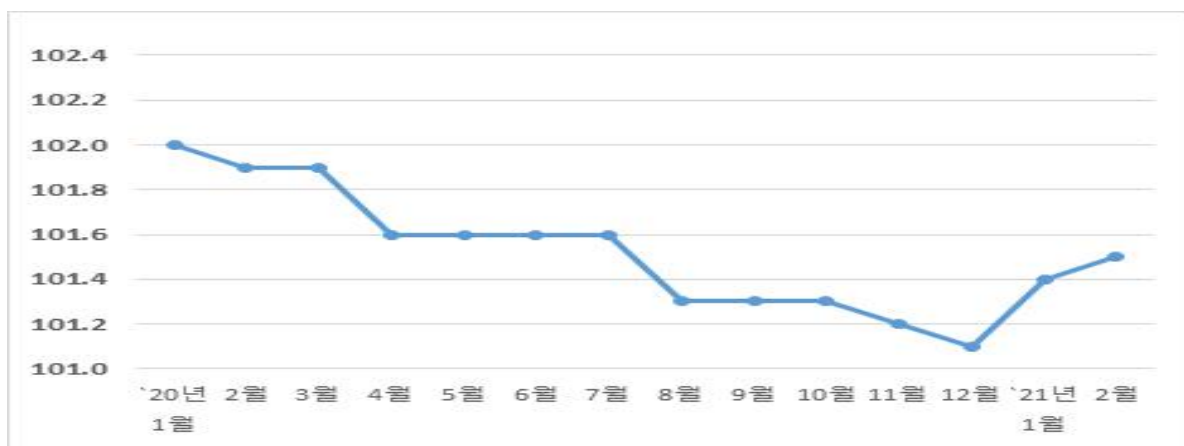
- 총무성이 19일 발표한 2월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0.4% 하락한 101.5%를 기록함. 전년 동월비교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한 것은 7개월 연속임. 그러나 하락률은 전월(▲0.6%)에 비하여 다소 축소됨

□ 주요 품목별 하락 및 상승률

- 하락 품목으로는 전기세(▲7.8%), 가스비(▲6.2), 그밖의 광열비(▲11.6%), 자동차 관련비용 등의 교통비(▲2.4%), 교육비(▲4.0) 등이 있었음
- 반면, 상승 품목으로는 화재·지진 등의 보험비(14.3%), 담배(10.2) 등의 품목이 두 자리수로 상승하였음

<월별 종합지수(신선식품 제외) 추이>

(2015년=100)



자료원: 총무성 전국소비자물가지수 통계를 이용해 저자 작성

<월별 종합지수(신선식품 제외) 동향>

(2015=100, 전월비는 계절조정치)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1월	2월
지수	102.0	101.9	101.9	101.6	101.6	101.6	101.6	101.3	101.3	101.3	101.2	101.1	101.4	101.5
전년 동월 대비(%)	0.8	0.6	0.4	-0.2	-0.2	0.0	0.0	-0.4	-0.3	-0.7	-0.9	-1.0	-0.6	-0.4

자료원 : 총무성 전국소비자물가지수 통계를 이용해 저자 작성

. 끝.